朝鮮日報

旅行證明廢止에對하야

南歐協約의新形勢 (七)

朝鮮古今人物 (三) 崔瑩 (十一)

歐米各國의社會運動 (八〇) 佛蘭西

朝鮮佛教革新論 (二)

歷史上으로본世界 (二)

헬만·도로데아 (六十七) 梁夏葉譯

詞藻

中國政局

王正廷總理署理

(北京十一日發電) 汪大燮總理는 其職을 免하고 王正廷氏가 代理總理로 任命되얏더라

保定會議急漸兩派

大總統問題에 對하야

(上海十日發電) 保定會議는 大總統問題에 依注되는바 漸進派는 爲先副總統을 選擧하고 其次에 黎總統에게 退位를 迫하야 曹錕氏를 副總統으로 大總統의 職權을 代理케하라고 主張하며 吳佩孚, 湖北督軍蕭耀南及河南軍務督理張福來諸氏는 此派에 屬하고 急進派는 爲先黎總統에게 退位를 迫하는 同時 曹錕氏를 入京케하야 秩序를 維持하고 大總統의 職權을 代行케하라고 主張하며 天津派及保定派는 此에 屬한바 陸軍檢閱使馮玉祥, 直隷省長王承斌氏는 皆此主張에 贊成하고 尙且兩院議員의 曹錕氏晬宴日에 保定에 向한 者가 三百人에 達하며 衆議院議長吳景濂同副議長張伯烈氏도 保定에 向한다더라

赤軍防衛隊派送

奉天軍事會議에서 決定

(奉天十日電) 赤軍의 國境威脅이 漸次增加함으로 東三省保安總司令張作霖氏는 八日司令部에 首腦者三十餘名을 招待하야 軍事會議를 開하고 左의 各項을 決議하얏다더라

一、東三省에서 防衛軍四個旅團을 出兵하야 遲하야도 十二月十五日々지 出發케할事

二、防衛軍總司令官은 源中東氏를 派遣하고 司令에는 綏寧鎭守使張宗氏, 第六旅長郭松齡의 兩氏를 任命할事

三、右防衛軍은 出發하는 同時에 大砲十門、機關銃十五門、小銃一千挺、砲彈三千發、小銃彈三十萬發을 兵器廠에서 給與할事

四、防衛軍을 臨時司令部及軍需品購入所를 設置할事

五、每月의 軍備는 大略四十萬圓으로하고 其中二十萬圓은 三省에서 負擔하고 其殘半額은 中央政府에서 支出케할事

右五項을 急速實行하기 爲하야 各々準備를 命하는 同時에 即日于參議를 該計畫陳述과 軍備를 受領하기 爲하야 北京政府에 派遣하얏다더라

靑島漸次靜穩

(東京電) 日本陸軍省着電報에 依한즉 左와 如하더라

一、十日正午靑島의 整理引繼를 終了하고 日本軍隊及憲兵은 時期를 待하는 貌樣이며 中國官憲은 日本의 指導에 基因하야 相當히 警備中임으로써 將來故障이 無히 推移할지오 十二日兵器의 交付를 行할 豫定이라

二、十日警備交付後李村附近의 村落에서 流亭白砂間右岸의 方面으로부터 到來한 匪賊十數名(四五十名이라도 傳함)에 對하야 中國警察隊는 警戒中이든바(靑島에 對하야 警戒網을 三線에 配置함) 結局衝突하야 數時間後에 交戰하고 匪賊은 即時逃走하얏다더라

三、目下租借地에 接近中인 匪賊의 數는 二千四百名으로 匪民은 拳銃을 相當히 所持하얏스나 小銃은 五百挺에 不過할지며 靑島警備의 中國巡警及步兵約二千八百名은 小銃千五百餘挺이 有하고 此에 日本政府에서 交付할 小銃이 到着하면 聯合匪賊의 來襲이 有할지라도 憂慮를 不要하리라더라

福州排日團掠奪

(臺北發電) 福州의 排日學生團日黨軍의 掠奪은 其後益甚하고 同地에 營業하는 臺灣籍民이 損害를 蒙한 者가 四十戶에 達하는 中이며 目下日本陸戰隊는 陸上警備에 當함으로써 人心은 幾分間安定되얏스나 其暴行은 尙且不絕하고 臺灣人의 歸國하는 者踵出하야 年內에는 歸還者三千餘名에 達하리라더라

歐米情報

海峽問題解決在邇

(로잔느十八日發電) 土耳其는 聯合國과 共히 露國의 提案을 拒絶하얏슴으로 『다々네르스』海峽에 關한 雙方의 紛爭點은 大部分諒解를 得함에 至하얏고 아직 紛爭中의 問題에 就하야는 土耳其及聯合國雙方의 專門家로 組織된 委員會에서 解決할터이며 露國은 該委員會에서 除外되고 土耳其側은 軍備撤廢地域設置案에 若干修正을 加할事를 條件으로하고 此를 受諾하얏다더라

日本要求拒絶

(倫敦十一日發電) 日本及中央歐羅巴의 數個國으로서 倫敦會議에 參加를 許하라고 要求하얏스나 聯合國各首相이 拒絶하얏다는데 亞米利加는 傍聽人을 參列케하기를 主張하얏스나 某々國이 反對하얏다더라

日波通商條約調印

(와소電) 波蘭日本間의 通商條約은 本月九日에 正式으로 調印되얏더라

露廷投降勸告

『스달크』提督에 對하야

(上海十一日發電) 勞農政府는 目下白軍의 一部를 引率하고 上海에 在한 『스달크』提督에게 對하야 無條件降伏을 勸告하얏다더라

『세』將軍長崎向

(門司發電) 『세미요노프』將軍은 十二日郵船春日丸으로 突然히 門司에 到着하야 瀨尾, 黑木兩顧問과 共히 長崎로 向하얏고 同將軍은 『에무에느』이라고 假名하얏다더라

軍艦靑島派遣

海軍副官談

(東京電) 日本靑島守備軍撤退의 時土匪가 擡頭한다는 風說이 盛行하는 故로 第一遣外司令官麾下의 軍艦對島를 靑島方面에 派遣하게되야 同艦은 十二日佐世保로 出發하게 되얏다더라

憲政會支部大會

(京都發電) 日本憲政會京都支部大會는 十二日公會堂에서 開會하얏는데 濱口氏外黨員二千名이 會合하야 決議한 後演說會에 移하고 午後五時에 散會하얏는데 其決議文은 左와 如하더라

一、國民의 思想을 善導하고 正義의 觀念을 高調할事

二、普通選擧를 即行할事

三、行政을 整理하고 財政을 緊縮하며 一般經濟界의 恢復을 期할事

四、工業界를 爲하야는 勞働問題 農業界를 爲하야는 小作問題의 立法的解決에 合力을 傾注할事

五、外交를 刷新하고 自修的國民的外交의 確立을 期할事

六、近時日本京阪地方에 勃發한 銀行의 破綻은 單純한 經濟問題에 不止하고 暫時社會問題化하라하나니 政府는 此善後策에 對하야 遮切한 處置를 할지라

白軍上陸許可

(上海十一日發電) 吳淞에 碇泊한 白軍々艦의 住民露國避難民九百名에 對하야 中國官憲이 上陸을 許可하기로 決定한 故로 彼等이 其面上에 欣喜의 色을 現하고 中國官憲은 是等避難民에 對하야 充分히 食糧을 供給할터인데 『스타르크』提督은 勞農政府의 勸告가 有함을 不拘하고 今後航海에 要하는 物資及燃料에 準備에 努力하나 今後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는 未詳하더라

預算變改

(東京電) 既報와 如히 朝鮮總督府特別會計에 屬한 補給金은 一千五百萬圓、公債는 二千萬圓으로 削減決定되얏는 △△△△△△ 데 總督府側은 尙且三千萬圓의 復活을 要求하고 大藏當局과 交涉을 繼續中이나 形勢가 不利한 故로 有吉總監이 十二日長衆을 京城의 總督府에 送하고 豫算에 對한 指揮를 請하얏스나 電信不通으로 因하야 右電報는 아직 京城에는 着信치 아니한 貌樣인데 京城에서는 此以上의 要求는 到底히 不可한 形勢를 觀測한 故로 總督府當局은 於是乎豫算의 編成을 變改할 外에 他道가 無하다하는데 經常部豫算에는 補給一千五百萬圓을 決定한 故로 大體原案을 維持함을 得하리라더라

勅選議員問題

(東京電) 日本現內閣은 來二十三日의 議會召集日前々지 勅選議員五名의 欠員에 對하야 補薦할터이든바 松方公平田子其他有力方面의 推薦候補者로 因하야 急히 詮衡을 終了치 아니하야 目下發表는 行키 難한 狀態이라더라

大銀支拂停止

(大阪發電) 日本大阪博勞町大阪銀行(資本十萬圓)은 積善의 餘波를 受하야 預金引出이 逐日增加하는 結果 十一日手形交換에서 十萬圓의 決濟不能에 陷한 故로 十二日朝부터 支拂을 停止한 豫金額이 三百萬圓이라더라

積善銀行整理案

(大阪發電) 日本積善銀行整理案이 左와 如하더라

一、普通貯金及三年五年積立貯金으로 [illegible] 은余額(但積立貯金은 [illegible] 到來한 者에 限함)

一、小口當座預金中百圓 [illegible] 金의 二割五分

一、百圓以上의 小口當座 [illegible] 預金은 該金의 一割

一、定期預金에 限하야 支 [illegible] 來치 아니한 者도 請求하 [illegible] 有普通貯金、積立貯金 [illegible] 財로써 銀行에 代로 任意 [illegible] 口當座以下의 預金을 現在 [illegible] 한 銀行의 金으로 二割五分 [illegible] 支拂하고 其他整理의 進行 [illegible] 漸次決定하야 發表함

築港事業

朝鮮에 在한 築港事業中 [illegible] 에 依하야 工事中에 屬한 主 [illegible] 釜山、仁川、元山의 三地인 [illegible] 의 現況을 略述하면 (가)釜山에 在한 事業은 現 [illegible] 業의 半에 在하고 大正十 [illegible] 에 完成할 計畫으로 [illegible] 五十萬噸의 量의 荷役을 [illegible] 세됨 豫定이며 (나)仁川에서도 船渠는 完 [illegible] 渫及陸上施設等도 大略落 [illegible] 으로 目下는 馴導堤에 對하 [illegible] 를 進行하는 中이며 尙且 [illegible] 에는 貨物上陸鐵道引込線 [illegible] 에도 着手할 計畫인 貌樣 [illegible] 에도 中國戎船의 繫留地 [illegible] 此를 築造할 必要가 有하며 [illegible] 압도 早晚間何等의 擴張을 [illegible] (다)元山은 岸壁突堤等의 [illegible] 이 余部가 終了하고 目下는 [illegible] 備及河川等의 工事만 終了 [illegible] 바 波防堤의 餘長이 短한에 [illegible] 般히 認定하는바인 故로 此 [illegible] 增築할 必要를 生할지라 尙且此外에도 當面의 築港問 [illegible] 南浦群山多獅島의 築港問 [illegible] 한바 此亦既히 當局에서 [illegible] 査를 終了한 貌樣이며 特히 [illegible] 의 兩港과 如함에 對하야 [illegible] 所의 設備도 終了한 故로 不 [illegible] 에 着手하게 되리라고 觀測 [illegible]

海運界不振

石原遞信局海事課長談

[illegible]

河川改修急務

原土木部 [illegible]

朝鮮의 河川을 概觀하면 何 [illegible] 이 無히 放任하야 沿岸의 利 [illegible] 으로 畝少한바 近時產業의 [illegible] 岸都邑部落의 發展等에 伴 [illegible] 濫으로 因하야 被害의 程度 [illegible] 大하는 傾向을 示하나니 即 [illegible] 害를 可及的 畝少케하고 地 [illegible] 的開發을 圖함에는 期於히 [illegible] 改修를 行할 必要가 有함으 [illegible] 서는 去大正四年에 朝鮮內 [illegible] 에 對하야 調査를 開始한 [illegible] 을 繼續하고 既히 昨今에 [illegible] 이 終了한 故로 其終了한 者 [illegible] 次改修의 工事를 進行할 [illegible] 現在此에 對하야 研究를 [illegible] 最近朝鮮產業上須要의 [illegible] 의 注目을 惹起함에 至한 [illegible] 如함도 上流의 一局部는 [illegible] 岸地方은 期於히 河川改修 [illegible] 과 相伴함을 要하고 不然 [illegible] 全關滿한 結果를 擧키 難 [illegible] 의 點으로 思考할지라도 [illegible] 改修事業은 一日이라도 [illegible] 大問題이라 此事業은 年 [illegible] 延遲延한만큼 必의 損害 [illegible]

◎◎◎◎◎◎ 米國黃金所在額

米國에서 今年十月一日 [illegible] 所在額이 三十八億七千 [illegible] 七萬八千七百十一弗이 [illegible] 額을 今年九月一日의 所 [illegible] 比하면 一千五百六十 [illegible] 九弗이 增加하얏고 又今 [illegible] 一日의 所在額에 比하면 [illegible] 千七百十九萬百六十二弗 [illegible] 하얏다、米國이 漸次로 [illegible] 金을 總히 吸收하는 貌樣 [illegible]

總督府移轉期

[illegible]

社告

十二月十三日本報第八百二十五號는 當局에 忌諱되야 發賣禁止를 當하야 押收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告白

水產合同問題

當局의 態度

[illegible] 贊否의 意見을 有하얏스 [illegible] 推移를 考慮하고 留且 [illegible] 針이 確實치 못한 今日 [illegible] 할 理도 無하고 常히 該 [illegible] 는 時에는 目下朝鮮의 [illegible] 臨하는 巾에 在한 低利 [illegible] 關으로 機能을 發揮케함 [illegible] 期待하는 巾이나 爲先今日 [illegible] 義로 因하야도 關係가 無 [illegible] 로서는 該問題에 對하야 [illegible] 이 迫寄되는 것이라고 하 [illegible] 合同運動에 對하야 直接 [illegible] 의 氣勢가 昂騰하는 時에 [illegible] 逸論의 主張과 如히 輕々 [illegible] 하야 不顧한다고 云할수 [illegible] 히 合同運動에 對한 社會 [illegible] 邊에 在한가를 愼重히 考 [illegible] 後에 當局으로써 執할 措置 [illegible] 하는 것인듯하더라

三南煙草耕作狀況에 對하야

今村專賣局庶務課長談

[illegible] 在한 本年의 煙草作況은 [illegible] 際하야 旱魃水害등의 災 [illegible] 大端良好하다고는 云키 [illegible] 라 然이나 此收納價格에 [illegible] 物價格下落에 不關하고 [illegible] 更도 加치 안이하얏슴으로 [illegible] 比較하면 耕作者의 受하는 [illegible] 도 從하야 多함으로 農民側 [illegible] 는 不平의 聲이 入聞되지 안 [illegible] 例컨대 山間地帶인 寧越地 [illegible] 優히 一反步二十圓以上의 [illegible] 하얏슴으로 耕作者는 擧皆 [illegible] 한지라 [illegible] 의 感想된 事는 本年은 專賣 第二年의 收納임에 不拘히 [illegible] 民의 耕作技術과 生產物處 [illegible] 行은 顯著한 것이 有하야 此 [illegible] 施行前에 比하면 隔世의 觀 [illegible] 五云하여도 敢히 過言이 안 [illegible] 한데 此狀態로 進行하면 [illegible] 에는 優히 日本의 煙草產地 [illegible] 야도 遜色이 無치 안이하겟 [illegible] 告發케하야 耕作人과 如함 [illegible] 練되야 收納事務進行上 非 [illegible] 를 增加하야 來한지라 唯希 [illegible] 少히 早速收納을 開始하야 [illegible] 年末々지는 全部를 終了커 [illegible] 와 在來種耕作地方의 農家 [illegible] 速히 貯藏의 場所를 設케히 [illegible] 因한 品質의 減輕을 防하고 [illegible] 바 此等은 勿論逐漸改良하 [illegible] 하다고 思惟하며 其次에 販 [illegible] 上으로 見한 속賣行에 各地 [illegible] 及等에는 尙且努力을 要할 [illegible] 히 增加하얏슴은 事賣인바 [illegible] 하고 今後에는 될수잇는되로 [illegible] 通絡을 秘密히하고 益々改 [illegible] 을 擧하도록 注意하얏스며 [illegible] 者가 多한 貌樣이엿고 當局 [illegible] 』도 既히 同地方에 送한바 [illegible] 後의 供給을 潤澤케하기 爲 [illegible] 的注意할이라더라

家內工業及副業(下)

八、『라메네스』製造業

[illegible] 內工業으로서 營業者는 無 [illegible] 料는 朝鮮內에 豐富하고 代 [illegible] 는 一臺百二十圓豫定인데 [illegible] 製六臺를 要하는바로서 機 [illegible] 計七百二十圓으로 一日生 [illegible] 萬八千個賣價一個二厘合 [illegible] 六圓을 得하고 原料代는 約 [illegible] 足함

前項과 如히 極히 低廉함으 [illegible] 方法의 正義를 不得하면 右 [illegible] 業이 못될줄로 思料하며 需 [illegible] 要販路亦廣汎하다 現在에도 日本滿洲中國印度方面輸出하는터이다

、『에리야쓰』製造業

當地에서야는 生產者가 無하고 收益이 不詳하나 需要販路가 亦廣汎하야 將來有望한 木業으로 認함

一、洋傘製造業

此亦아즉 生產者도 無하고 收益이 未詳이나 販路가 朝鮮內滿洲方面에 需하야 將來有望한 木業인줄 思料함

一、唐傘製造業

二、生產戶數約十戶 從業者數約二十人

三、一人一日約五本

四、需要는 益々多하고 販路도 亦地方注文도 增加함

九、唐傘一本材料代約七十五錢賣價一圓乃至二圓

六朝鮮人의 需要人口增加에 伴하야 需要가 益々增加함

一、提燈製造業

二、生產戶數五、從業者數八人 大正八年四戶 從業者數八人 同九年三戶 從業者數四人

二、太半需用者의 注文으로 熟練工은 一人一日에 約二十個

四、近時朝鮮人의 需要增加의 傾向이 有하고 地方注文도 不少함

九、原料代一個에 十錢內外 賣價一圓二十錢內外

六、別로 影響도 無한듯

七、其他의 必要가 無함

英國國家賞與案

◆◆◆◆◆◆ 英國國家賞與案

英國에서는 一千九百十八年에 『에디스、밀나』라 하는 靑年이 國家賞與案을 做出하야 同時 各方面의 贊成者를 得한 故로 『國家賞與期成同盟』이라는 運動團體가 成立되야 全國에 贊成者를 求하얏다◇國家賞與라함은 國家가 總國民에 給與하는 賞이니 國家가 國民의 收入에 有한 者로서 其收入의 二割을 徵稅한 다◇其代에 男女를 勿論하고 一般國民에게 十四歲未滿의 兒는 一週에 三志年式、其以上年齡의 者에는 一週에 五志式國家의 賞與로 給하는 것이다◇一週五志면 一年에 十三磅인 故로 未婚의 男女로 一年에 六十五磅以下의 收入만 有한 者는 此賞與로 利益을 得하는 것이다◇何故오 하면 六十五磅의 二割은 十三磅이니 一年에 六十五磅의 收入이 有한 者는 稅金으로 十三磅을 納하고 國家賞與로 亦十三磅을 得하야 得失이 無한 所以다◇何如間此案에 依하야 財產家는 多額의 稅金을 納하나 一般國民은 老弱男女와 病人、不具者를 勿論하고 生命에 威脅되지 아니하야 人民의 生存權을 確立케하는 것이 此案의 骨子이라

府內便壺設備狀況

夏季以來로 傳染이 續發하야 衛生狀態가 頗히 不良한 故로 京城府에서는 各戶便所가 完備치 못함을 認하고 各警察署管內를 調査한 則便壺가 甚히 不足한 故로 府內의 最히 不完全한 西大門管內부터 設備에 着手하야 其數約七百個의 便壺를 設備完了할터인데 其便壺는 全部府에서 給與하기로 決定한 故로 其材料蒐集에 不少히 困難한 模樣이오 更히 鍾路署管內에 設備를 續行하기 爲하야 其數를 調査하얏더니 아즉 完了치 못하얏스나 既히 三百個에 達한다하고 又塵芥桶은 材料의 蒐集에 困難함과 前記便壺의 設備로 因하야 其設備々지는 相當한 時日을 要하겟더라

朝鮮邑誌社設立

兪雄九、全一氏等이 朝鮮邑誌社를 設立하고 朝鮮邑誌를 發刊하는 趣旨의 全文이 如左하더라

噫라 我半島疆域이 關隴方址ㅣ頗가 自太白檀君으로 初有君長이어 箕京八條하야 及至松岳에 始有尼丘하야 烏川에 起理學之祖하며 沙川에 有道義之父하야 戶誦夫子하며 家行忠孝하야 稱以君子國이라하야 三綱倫質이 如天有昆也러니 夫何彝倫이 敎絶에 無變不生일세 吾儕가 慨乎此久矣라 誌라는 記其實而謂其傳也니 自麗誌以來로 若無誌乘이면 徐居正의 輿地之著也에 莫비知徵이오 今無此書면 後來者의 研究上에 亦無可據文獻일새 幸此誌가 上自忠孝之賢으로 以及綺閣淑媛과 至閭巷歌謠之辭에 凡有奇偉之行과 特異之事면 從誠之하니 然則勿論某邑하고 人物의 高下와 風俗의 美惡에 俳著하고 又佳麗游地와 擅名亭樹도 亦有述焉하야 瞭然可知니 豈非要梯乎아 挽近環球通涉에 物里咫尺이라 機關과 智識이 開見이 一層更張하야 時局의 變幻과 風潮의 汪洋에 革舊挽新之論이 澎湃沸騰하야 輒曰新時代新學問을 不得不乘時從俗이라하나 篤勵新智之暇에 窺閱是誌면 我東祖代에 倫理道德의 見聞과 忠賢義烈의 事蹟이 瞭然風燭이니 是豈敢少忽哉아 若專昧其實하고 偏事其文하면 是爲欠典일세 今接務刊許可하야 茲以廣佈하오니 伏願均域僉尊ㅣ有志具眼은 覽此同憐하시와 一依規則條例하야 閭有懿範과 野多遺賢을 這々博采하야 通知本社에 掛一漏萬의 歎에 無케하야 裁之汗靑하면 反敵楔紅이라 理無不復이오 慈有餘慶이니 吾儕의 敢進黃葉止啼之誼를 橫域僉尊은 勿負亮察焉

日本電信依然不良

十一日夜以來日本名古屋附近大降雪로 因하야 不通인 東京大阪間電信線의 障碍는 아직々지 恢復치 못하야 同地間의 電報는 大部分郵送의 外에 他道가 無한 故로 朝鮮과 東京方面의 電報는 全無하며 大阪々지 電送하고 同地에서 東京에는 通常電報에 限하야 郵便繼送을 開始한 故로 大遲延을 不免하고 尙且各線의 被害程度는 詳細不明하며 被害區域이 意外로 擴大하니 目下의 復舊時期는 預想키 難하다더라

民聲

▲歲色은 紗薄하고 寒威는 砭骨하는 이때에 眼光을 놉히어 大地의 氣色을 살펴보면 蕭瑟한 것도 冷落한 것도 만은 그個中에▲最近에 와서는 法網이 緻密한 京城大都로 始하야 地方各處에 至하기々지 强盜라 窃盜라하는 騷動警戒 또는 發覺이니 逮捕이니 搜索이니하는 報道가 每日에 續々히 紛遝하야 間斷이 업다할만치 慄慄하다▲經濟의 逼迫인가 人心의 惡化인가 此種破廉恥的强暴非行이 엇지 그리 頻々發生하는가 世道의 低下함과 物態의 流變함을 顧念하건데 實노 慨然한 感歎을 堪勝치 못할진더 慨然함을 禁치 못하다하노니 할것이다▲그러나 또 一邊으로 回想그中에 根本的으로 凶獰奸黠의 輩가 天良을 喪失하고 그러한 暴行非行을 敢作하야 習性을 仍成한 것도 업지 안을것이지만은▲이갓치 天良을 喪失하야 習性을 仍成한 것이 그와 갓치 多數이라하면 이는 民衆의 內部가 多數惡化라함과 一般이니 이는 萬無할 理致이라 그러면 무슨 原因으로 이러한 爻象을 現出하는가▲이는 他原因이 안이라 俗談에 『三日을 굴머 盜賊질 안이할 사람 업다』는 것과 갓치 智識이 업서 恒心을 素養치 못한 低級細民이 飢寒이 切迫함에 刹那間良心이 晦蔽되여 이러한 行爲를 忍行함이 實多할것이다▲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救援하야 刑辟에 抵觸됨이 업게할가 다만 經濟力으로 生活을 向上케하며 相當한 恒產恒業을 各授하면 此種行爲를 日勤할지라도 犯함이 업술것이어이 民衆에 對한 經濟策을 急히 研究할것이라한다

商況

大阪三品

十二月十三日前場

	初付	止値
十二月限	二〇九、六〇	二〇九、八〇
一月限	二二二、五〇	二二一、三〇
二月限	二二五、〇〇	二二五、一〇
三月限	二二七、五〇	二二七、一〇
四月限	二二九、九〇	二二九、四〇
五月限	二二〇、五〇	二二九、六〇

大阪株式

十二月十三日前場

銘柄	寄	引
大株	九六、九〇	九五、六〇
同新	七六、三〇	七五、一〇
鐘紡	二七三、九〇	二七二、一〇
同新	二五四、一〇	二五二、〇〇
商船	………	四〇、九〇
同新	一〇、六〇	一〇、〇〇
郵船	八六、七〇	八六、五〇
同新	………	二九、五〇
東紡	一〇八、〇〇	一〇八、一〇

京取前場低落

十三日前場은 坂地의 繼續的軟調로 大新에 七十五圓五十錢과 鍾紡新에 二百六十五圓七十錢으로 入電되며 本場人氣는 軟弱한 中多少活氣로 立會하니 京取는 昨日止價보다 三十錢안으로 五十一圓二十錢寄付하야 步調一圓으로 五十圓臺로 來往하더니 其後坂地가 益々無勢하게 入電되며 五十圓臺를 割하야 四十九圓九十錢으로 低價十錢々지 出現하다가 小反하야 五十圓臺로 四十九圓臺의 內外로 多少波瀾을 呈하고 結局九圓五十錢에 止하엿는데 手振賣方에는 金應龍力奎煥犬島關鎔鎬中村櫻谷橋下井이며 買方에는 有田出中新田池田並潤秀北村으로 約二千株取引되엿고 仁取는 賣買不成하고 同新은 四十一圓三十錢寄付로 三十錢에 止하엿고 安取는 十七圓八十錢寄付로 八十錢에 止하엿고 大新은 阪地의 軟勢를 隨하야 七十六圓寄付하야 步調五圓臺로 四圓九十錢々지 賣買하더니 結局四圓五十錢에 止하엿고 朝紡은 十五圓寄付하야 步調四圓半錢으로 結局六十錢에 止하엿고 週間에는 殖新이 十二圓二十錢으로 京信今週는 四十二圓八十錢寄付하야 其後四圓으로 五十錢으로 止하엿고 來週는 四十四圓 賣買不成하엿고 場面은 軟弱한 人氣로 止場되더라

京取市場

後場續落

大新繼續暴落

大新에 前場止價보다 八十錢低하야 七十三圓四十錢으로 入電되며 人氣는 依然軟弱한 狀態로 立會하니 京取는 前止보다 六十錢低로 四十八圓九十錢寄付하야 步調八九圓臺로 低價八圓三十錢々지 出現하더니 結局九十錢에 多少閑散裡로 止場되더라

京城綿糸布時勢

十二月十三日

先期	取引前場 寄	取引前場 引	取引後場 寄	取引後場 引
東取	五一二〇	四九五〇	四八九〇	四九一〇
安取	一七八〇	一七八〇	一七四〇	一七四〇
仁新	四一三〇	四一三〇	四〇九〇	四〇三〇
大新	七六〇〇	七五〇〇	七四三〇	七三九〇
朝紡	一五〇〇	一四六〇	一三九〇	

京株市場賣買價

十三日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京取	引寄	……	……	……	……
仁取	引寄	一二五〇	……	……	……
同新	引寄	[illegible]	……	……	……
鮮銀	引寄	八九五	……	……	……
同新	引寄	三三〇	……	……	……
殖銀	引寄	[illegible]	……	……	……
同新	引寄	三三〇	……	……	……
[illegible]	引寄	[illegible]	……	……	……
[illegible]	引寄	[illegible]	……	……	……
[illegible]	引寄	[illegible]	……	……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同新	引寄	……	……	……	……
漢銀	引寄	[illegible]	……	……	……
同新	引寄	[illegible]	……	……	……
韓一	引寄	[illegible]	……	……	……
東拓	引寄	[illegible]	……	……	……
同新	引寄	[illegible]	……	……	……
鮮土	引寄	[illegible]	……	……	……
朝紡	引寄	[illegible]	……	……	……
綿毛	引寄	八〇〇	……	……	……
京電	引寄	……	……	……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電興	引寄	[illegible]	……	……	……
朝郵	引寄	[illegible]	……	……	……
殖鐵	引寄	[illegible]	……	……	……
中鐵	引寄	[illegible]	……	……	……
同新	引寄	[illegible]	……	……	……
朝鐵	引寄	[illegible]	……	……	……
同新	引寄	……	……	……	……
東亞	引寄	……	……	……	……
同新	引寄	……	……	……	……
朝煙	引寄	……	……	……	……

品名	價格
綿布三A	二六五、〇〇
同九龍	二五四、〇〇
同大A	二二四、〇〇
同金鷄	二〇八、〇〇
同金剛山	一八六、〇〇
同[illegible]	[illegible]
晒木綿作	[illegible]
綿布飛犬	[illegible]
同世榮島	[illegible]
納金布進軍	[illegible]
同金鷄	[illegible]
綿糸扇面	二二四、〇〇
同雙女	二〇六、〇〇

大阪期米

十二月十三日前場

當寄	二五、二一
止	二五、〇二
中寄	二四、六一
止	二四、四〇
先寄	二四、六九
(二節)	、六九
(三節)	、七〇
(四節)	、七〇
(五節)	、七二
(六節)	、六八
(七節)	、六四
(八節)	、六二
(九節)	、五五
止	二五、二〇

仁川期米

十二月十二日後場 (小押形勢)

今前場은 大阪二十四圓八十二錢으로 一錢々지 下押한 後離低離高의 保合勢로 八十錢臺에서 採合不振임을 伴하고 二十圓八十錢에 始하야 九十一錢々지 返戾하엿스나 此에는 買氣亦沈衰하야 八十錢으로 反落한 後一錢에 前場을 止하엿는데 後場에 至하야 阪地初付二十四圓八十四錢으로 三節七十四錢인 十丁崩頹의 情報를 接하고 立會하니

▲第一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二十圓七十錢 先限은 二十圓七十七錢으로 前止價보다 四丁低히 大阪과 一步調로 初付하다

▲第二節 阪地四節七十錢인 依然勢를 伴하고 當中兩限은 不成이나 先限은 七十二錢에 始하야 三錢아지 小戾하엿다가 反히 七十錢으로 小弛한 後三錢々지 返戾하야 止하다

▲第三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七十五錢一口를 生하고 先限은 七十六錢에 始하야 五錢々지 一丁小弛한 後八錢으로 跳返하엿다가 七錢에 止하다

▲第四節 阪地止價七十錢인 又復低를 受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七十三錢으로 七十錢을 示한 後七十一錢에 止하고 先限은 七十二錢으 [illegible]

十二月十三日前場 (俄然反落)

昨後場은 阪地二十四圓八十四錢으로 七十四錢을 伴한 當地時勢는 二十圓七十七錢에 始하야 其後七十錢의 步調로 七十錢々지 反落한 後五節에 至하야 人氣案外硬味를 加하야 七十六錢으로 稍高하야 後場을 止하엿는데 今前場에 入하야 大阪初付二十四圓六十九錢으로 三節七十錢인 小高를 接하고 場面은 若干硬氣를 添하야 立會하니

▲第一節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二十圓七十五錢 先限은 二十圓八十錢으로 昨止價보다 四丁高히 初付하다

▲第二節 阪地五節七十二錢인 稍高를 接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七十五錢一口를 生하고 先限은 七十八錢에 始하니 場面이 稍히 硬味를 呈하고 八十五錢々지 跳返하야 止하다

[illegible]

▲第五節 阪地八節六十一 [illegible] 五十五錢인 連節低落임을 受 [illegible] 面이 突然軟態에 傾向하야 當 [illegible] 成이나 中限은 六十四錢一口를 生 [illegible] 고 先限은 七十五錢에 始하니 不筋에 爲始하야 軟派의 賣物이 演出함으로 六十二錢々지 奔落한 後七錢으로 稍高하야 止하다

▲第六節 阪地止價五十錢인 又復低價를 接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六十錢으로 五十五錢아지 下押하고 先限은 六十錢에 始하니 此邊에는 若干買物이 有하얏스나 亦伸力치 못하고 不及㋮筋의 猛烈한 賣物이 演出함을 反하야 ㋐筋은 爲始하야 目前節의 大利喰買物이 簇出하야 一大混戰을 致하고 五十九錢인 最近低價를 生한 後六十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二十六丁이더라

取組高	
當限	一千三百石
中限	一萬二百石
先限	二萬四千石
總賣買總石數	八萬二千八百石
未期總取組高	六、三〇六、六〇〇

當分間小搦時勢

昨今稍高稍低의 場面은 實로 時筆할 材料가 無하고 單히 人氣의 俄變雲轉의 關係로 照準儀의 『알쇼르』流動과 如히 靜中微波의 勢를 作할뿐인데 二十一圓臺에서 保續하다가 二十圓臺를 割破한 七八十錢의 時勢는 高價에는 一般人氣가 依然寬浴하는 同時에 地場有力筋이 不及㋮筋의 途中轉賣가 添加할뿐더러 阪地市場의 俄然正米低落과 株式落을 伴한 二十四圓臺를 現出함으로 由함인데 此邊低價에는 亦容易히 下落치 못하며 一方으로 正米의 形勢를 觀하면 目下集散市場의 逈着이 稀薄함으로 連日高明을 呈하나 또 暗中에 頭重의 感도 不無하야 無慮히 上放치 못함을 觀할지되 此邊頭重保勢는 今低民落의 餘勢가 有하리라 正米師는 云々이며 싸라서 期米의 形勢도 當分間小搦時勢에 不過하리라고 推測함이더라

十三日後場(電話)

	公定價格
初付	二十圓八十錢
止値	二十圓六十錢
高値	二十圓八十五錢
安値	二十圓五十九錢
一節	二十圓八十錢
二節	二十圓八十一錢
三節	二十圓八十九錢
四節	二十圓七十九錢
五節	二十圓七十七錢
六節	二十圓六十錢
初付	二十圓四十一錢
止値	二十圓四十一錢
高値	二十圓四十一錢
安値	二十圓二十七錢

	大價格
一節	二十圓三十一錢
二節	二十圓三十一錢
三節	二十圓三十八錢
四節	二十圓三十九錢
五節	二十圓四十錢

會議紛々한 李王職

金谷洪陵의 石碑問題로 장차 관은회의에 분주하야잇고 일반은 리왕직의 해태함을 비난

고종태황제의 릉을모신 양주금곡 홍릉(楊州金谷洪陵)의 참봉으로잇는 고영근(高永根)씨가 고종태황제께옵서 승하하압신지 이미사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홍릉에비석을 세우지못한것을 대단히유감으로 생각하야 리왕직과 하등의협의도 업시 자의로비를 비밀히석에여지난섣달상오구시에 홍릉비각안에 비를세우고 리왕뎐하께 상소를올니는동시에 죄를속하기위하야 동일오후두시경에 창덕궁 돈화문압헤서 거적을깔고 석고대죄를하얏다함은 작보함과갓거니와 이사건이탈성한후로 리왕직에서는 장관(長官)차관(次官)이엇지할줄을몰나 황황급급하다가 이사실을즉시 총독부에 보고하얏더니 총독부에서는 다시일본궁닉성에 보고하야 가진의결말을 기다리는중인바 아직까지 아모러한회시가 업슴으로 다만 리왕직에서는 중요직원이장관실에모히여 무엇인지비밀히협의만할뿐이오 일반사회에서는 리왕직의나태함을타미하는동시에 사건이장차엇지나락착이될가하야 민우궁금히역이는중이라더라

碑石은 當分奉置

궁닉성과회의한후에 엇더케던지하겟다고

이미세운비석에더하야는 리왕직장관이 고영근씨에게 터하야속히뉘키라고까지말하여보앗스나 고영근씨는한번세운비를 다시뉘입수는업다고 강경한태도로일향듯지아니하매 리왕직에서는 아모리샹당한수속을밟지도안이한고 참봉이독단뎍으로 희세운비라할지라도 이미존중한비를세운이상에는 엇더한사람이라도 이것을이러로써 어니거나 뉘입수는업는터인즉 그냥둘수밧게는 다른도리가업스나 이것도역시막측한비를세울써에 리왕뎐하께품달치도 아니하고 참봉이자긔마음대로 세운비를 그냥둘수도업는터임으로 리왕직에서는 이리할수도업고 저리할수도업서 당분간은 그냥두고볼수밧게 업다고 모직원은말하더라

禮式課長은 辭職?

감독불충분으로 인척사직을할듯

홍릉에비를세운 고영근씨는 지난십일밤에 리왕직으로부터 돌아온후 다만리왕뎐하께서 엇더한분부가게실써만기다리고 근신하는중에잇는대 이번사건으로말하면 순전히고영근씨가 상관에게의론도업시 자단으로한일입으로 리왕직에서는 관긔를문란(官紀紊亂)하얏다는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로결뎡이된모양인테 원래릉참봉이란것은 판임관의대우를밧는터임으로 총독부에서 임면을하는것이오 리왕직에서는 임의로 임면을식일권리가업슴으로 징계처분에 대하야는 방금총독부와 협의하는중이며 또는릉참봉을 감독하기는 리왕직례식과(李王職禮式課)에서관할하는것인즉 이번에 례식과의과장이되는 리항구(李恒九)씨도감독을 불충분히하엿다는리유로 취임삼사직을할는지몰은다는바 더욱히일주일동안을두고 비석을식이도록 례식과에서 전연히 아지못하얏다는것은 너머나불주의한일이라고 인뎡할수밧게업다더라

學生과 刑事衝突

日本各地의 大雪

廣文社의 創立會

宣統帝結婚式의 儉薄

義州郡에 武裝獨立團

군자금팔빅여원을모집하고

紡績會社의 無期休業

可憐한朝鮮女工의運命

赤軍占領後의 海港

敎員의 生活費

學父兄의 斡旋

土匪가 靑島襲擊?

派遣員이 先着隊

一年間의 助興稅

滿洲情報

哈爾賓에 大火又發

損害額은二十餘萬圓

組合創立

在撫順朝鮮人

協會解散도不遠

奉天·赤軍

輯安縣에 馬賊

兄弟間에 格鬪

親日者를 脅威

賤業婦增加도 生活難

年年激增하는原因의裏面

金時計가 何處出

흑은기생

藝妓及娼妓人員表(十二月十二日調査)

藝妓	今年度	昨年度
一月現在	六二四人	四八八人
十二月現在	五九一人	六〇一人

一月現在는昨年보다百三十六人이增하얏고十二月現在에는十人增

娼妓	今年度	昨年度
一月現在	六九八人	七一〇人
十二月現在	六八八人	六一八人

娼妓는一月一日現在보다十三人이減하얏스나十二月一日現在에는七十人이增加

强盜의 自白

天氣豫報	
日出	上午七時三十五分
日入	下午五時十五分
晴	自昨日午後三時 至今日午後三時
溫度	十三日正午二八、二
華氏同日六時最底	一二、七

▼正誤 昨日發行本報第八百二十九號三面新生活事件도起訴라는題目下記事中盧甚禎氏의盧字는魯字의誤植이기에正誤함

잔소리